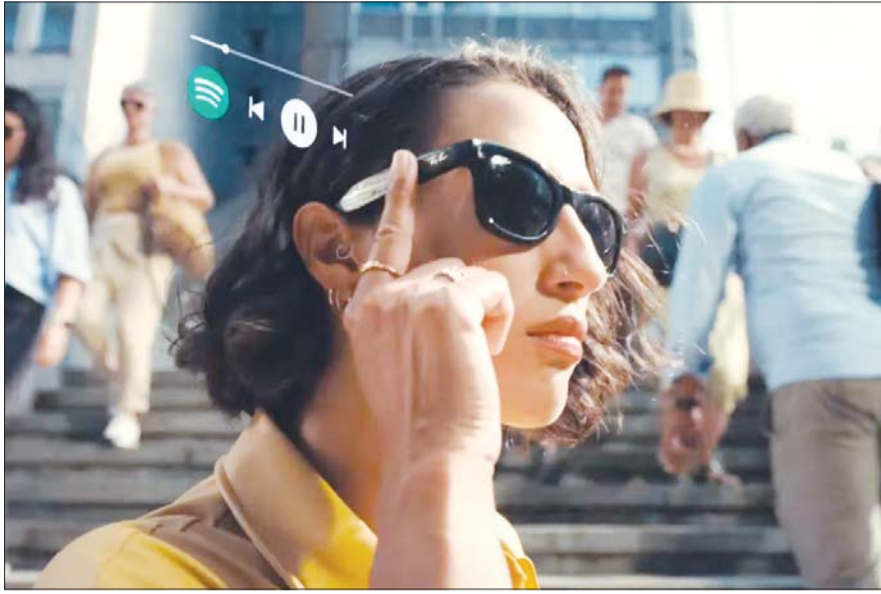


스마트폰 다음은 'AI 안경'... 빅테크, 시각 데이터 쟁탈전

메타, 독보적 선두... 신제품 선배
삼성전자-퀄컴, XR 생태계 확장
구글-젠틀몬스터와 개발 협력
엑스리얼, 韓 시장서 가성비 전략
발열·전력·무게 문제 해결해야
무단촬영 등 개인정보 침해 우려



메타는 오는 14일 레이벤 메타 스크라이버와 블레이저를 출시 할 계획이다. /메타

인공지능(AI) 스마트글래스 시장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정보를 전달하는 보조기기를 넘어 사용자의 시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부상했다. 사용자 시야에서 생성되는 1인칭 데이터가 AI 서비스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면서, 이 데이터를 선점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주도권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졌다.

5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스마트글래스를 차세대 개인 컴퓨팅의 핵심 플랫폼으로 보고, 사용자 시각 데이터를 선점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생태계 구축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에 따르면 AI 스마트글래스는 스마트폰 이후의 개인 컴퓨팅을 시선과 공간 기반 인터페이스로 전환하는 차세대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컴퓨팅이 클릭과

검색 중심이었다면, 스마트글래스는 사용자의 시선과 주변 환경, 행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의도와 상황을 반영하는 맥락 정보로 작동한다.

시장의 성장 속도 역시 파격적이다. 그랜드뷰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글래스 시장 규모는 2024년 19억3000만 달러로 추산되었으며, 2030년에는 82억6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성장률은 27.3%에 달할 전망이다. 옴디아에서는 올해 AI 스마트글래스 출하량이 1500만대로, 전년 대비 72%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현재 이 시장의 독보적인 선두 주자는 메타다.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 중인 메타는 레이벤과의 협업을 통해 카메라 기반 사물 인식, 실시간 번역 기능을 결합하며 초기 수요를 장악했다. 메타는 오는 14일 '레이벤 메타 스크라이버'와 '블레이저' 등 신규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기존 칩셋보다 업그레이드된 하드웨어와 와이파이 6 지원을 통해 실시간 영상 기반 AI 기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메타는 안경을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가전제품으로 정의하고 VR 사업 비중을 줄이는 대신 웨어러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구글, 퀄컴 연합군의 반격도 가시화됐다. 이들은 확장현실(XR)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반도체를 결합한 생태계 확장을 시도 중이다.

특히 삼성전자는 구글,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와 협력해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잡은 AI 스마트글래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판매가 예상된다. 여기에 애플 역시 디스플레이 탑재 여부에 따른 두 가지 유형의 제품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픈AI 또한 스크린리스 AI 단말기 개발에 착수하며 경쟁에 가세했다.

중국 기업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엑스리얼(XREAL)은 최근 자체 개발 프로세서인 'X1 칩'을 탑재한 '엑스리얼 1S'를 한국 시장에 공식 출시하며 가성비 전략을 내세웠다. 샤오미와 알리바바, 로키드 등은 자국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를 등에 업고 개방형 전략과 이커머스 결합 기능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군에서 강세를 보이며 사용자의 시야에 지능형 정보를 투사하는 '엠비언트 AI' 기능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기술적 진화와 함께 넘어야 할 산도 존재한다. 고성능 AI 연산과 영상 처리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발생하는 발열과

전력 소비 문제는 여전히 병목 구간이다. 안경이라는 특성상, 무게를 50g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물리적 제약도 크다.

사용자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이 데이터가 되는 만큼, 무단 촬영이나 정보 식별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최근 케냐 나이로비에 본사를 둔 테크 기업 사마(Sama)의 내부고발자들은 "우리 직원들은 스마트글래스 중 하나인 '메타 레이벤'으로 촬영된 영상을 검토하고 라벨링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스마트글래스 사용자들이 옷을 벗거나 화장실을 가는 모습, 심지어 성관계를 맺는 모습까지 전송돼 라벨링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기술 활용 여부에 따른 생산성 격차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주변인이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고지 체계와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SPRI 관계자는 "AI 글래스를 통한 영상·사진 촬영 시 주변 제3자가 촬영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지와 표시가 필요하다"며 "주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이용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박윤영 대표 호남행... 취임 첫 AX 경영 행보

(KT)

첫 지역일정으로 전남·전북 방문
단단한 본질 기반 확실한 성장 방침
'AX 플랫폼 컴퍼니' 핵심역할 당부

박윤영 KT 대표가 취임 이후 첫번째 지역 일정으로 전남·전북을 찾아 현장 중심 경영을 본격화했다.

KT는 3일 박윤영 대표가 서부네트워크운용본부와 서부법인고객본부, KTcs 등 그룹사가 위치한 전남 광주 KT신안타워, KT광주타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가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KT 성장과 사업 정체성에 대한 단단한 본질을 기반으로 확실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경영 방침에 따른 행보다.

그는 현장에서 만난 직원들에게 "KT를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이자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인공지능전환(AI



박윤영 KT 대표(왼쪽 첫번째)가 3일 전남과 전북 서부네트워크운용본부와 서부법인고객본부 등을 방문해 직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KT

X) 플랫폼 컴퍼니'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직후 첫 일정으로 경기 과천에 위치한 KT

네트워크·보안 관제센터를 찾았다. 통신 서비스 근간인 네트워크 안정성과 보안 경쟁력을 경영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김서현 기자

최수연, 마크롱 대통령과 AI·클라우드 논의

(네이버 대표)

'네이버랩스 유럽' 운영경험 등 소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3일 방한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나 AI·클라우드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네이버 측에서 김희철 CFO,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석상욱 네이버랩스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프랑스 측에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최수연 대표는 프랑스 그르노블에 위치한 '네이버랩스 유럽' 운영 경험과 현지 투자 사례 등을 소개하고, 네이버의 AI 및 클라우드 기술 역량을 설명했다. 특히 자체 거대언어모델부터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연결된 기술 구조를 바탕으로 프랑스 기업과의 협력



최수연 네이버 대표(왼쪽)와 김중출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오른쪽)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프랑스 국빈오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가능성을 제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AI 산업 육성 정책을 설명하며 양국 간 기술 교류와 투자 협력 확대에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면담은 프랑스 정부 요청으로 진행됐으며, 국내 주요 기업 경영진과의 개별 회동 일정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김서현 기자

LG U+, 유심 업데이트·무료교체 안내문자 1068만건 발송

내일까지 추가 안내 예정

LG유플러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전 고객 대상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에 앞서, 지난 금요일까지 전체 발송 대상 고객의 64.1%인 1068만건의 고객 안내 문자 발송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30일부터 고객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심 업데이트 및 무료 교체 관련 안내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6일에서 7일 중에는 MNO

480만명, MVNO 118만명 등 총 598만명에게 추가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문자 안내는 고객들이 유심 업데이트와 무료 교체 절차를 사전에 이해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 조치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문자 발송 이후 고객센터에는 유심 업데이트 가능 여부, 유심 업데이트와 유심 교체의 차이, 절차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유심 업데이트는 13일부터 U+one 앱 또는 LG유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매장 방문 없이 간편하게 조치할 수 있다.

또한 매장에서 유심 업데이트나 유심 무료 교체를 희망하는 고객은 8일부터 U+one 앱 또는 홈페이지 내 '매장 방문 예약' 서비스를 통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보다 편리하게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대상 확인은 8일부터 U+one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서현 기자

NC AI, '바르코'로 글로벌 창작 생태계 구축

크리에이터 창작·유통 등 전 과정 지원

NC AI가 생성형 AI '바르코'를 중심으로 크리에이터의 창작부터 유통·확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작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AI를 단순한 창작 도구를 넘어 콘텐츠 경쟁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참여 크리에이터에게는 ▲바르코 3D ▲바르코 사운드 ▲바르코 보이스 ▲바르코 트랜스레이션 ▲바르코 아트패션

등 5개 서비스 활용을 위한 무료 크레딧이 제공된다. 우수 사례로 선정될 경우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와 주요 매체 노출, 유료 마케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원 범위는 오프라인으로도 확대된다. 온라인 채널뿐 아니라 미디어월 전시 등 오프라인 접점을 활용한 콘텐츠 홍보가 병행되며, 향후 다양한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NC AI는 향후 창작물이 교육, 강의, B2B 협업 등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 크리에이터의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